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rents' Play Support Beliefs and Children's Playfulness on Children's Ego-Resiliency

김수예¹ 김현경²

Sooye Kim¹ Hyoun K. Kim²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 play support beliefs and children's playfulness on children's ego-resiliency.

Methods: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236 young children aged 3 to 5, their parents, and teachers in 19 day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Descriptive statistics, bivariate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The major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verall, the level of parents' play support beliefs, children's playfulness and ego-resiliency tended to be high in the present sample. Second, mothers' play support beliefs and children's active participation in play we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children's ego-resiliency. Third, parents' play support beliefs had no moderation effect on the effects of children's playfulness on their ego-resiliency.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arents' play support beliefs and children's playfulness are effective in improving children's ego-resiliency.

key words children's ego-resiliency, parents' play support beliefs, children's playfulness

* 본 논문은 2020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의 수정·보완한 것임.

1 제1저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

2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교수

(e-mail : hyoukim@yonsei.ac.kr)

I. 서론

현대사회의 급변하고, 복잡해진 사회적 구조 및 기능은 유아로 하여금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박성혜, 김광웅, 2003).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유아는 좌절하고, 다른 어떤 유아는 이를 극복하고 적응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개별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기인한 것이다(이현주, 문혁준, 2011; Condly, 2006).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와 스트레스가 많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긍정적인 적응을 돕는 능력을 의미한다(LeBuffe & Naglieri, 1999). 자아탄력성이 높은 유아는 직면하는 문제 상황에서 적응적 행동과 능력을 통해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줄여나가며(Tugade & Fredrickson, 2004) 또래, 성인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다(고영희, 2010).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유아는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와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쉽게 좌절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경험하기 쉽다(Masten, 2001). Werner와 Smith(2001)는 종단연구를 통해 유아기의 자아탄력성이 성인기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Block과 Block(2006)도 유아기에 자아탄력성이 긍정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면 청소년기에 우울증, 약물남용 등의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성공적으로 발달된 유아는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하게 적응하고, 회복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구회정, 2010). 유아기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아탄력성 발달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이므로 유아기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발달요인과 저해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이하정, 탁정화, 2015).

자아탄력성은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며(김선희, 2005), 유아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를 습득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정은 유아가 최초로 경험하는 사회이며,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적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부모라는 인적 환경은 자녀의 최초 관계 형성 대상이자, 사회화 모델로서 유아의 자아탄력성 발달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Brooks, 2005). 부모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은 애착,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등과 같은 유아의 내적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우수경, 정영숙, 2003). Grusec(1993)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심리적 요인에 속하는 신념은 양육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발달과 관련된 부모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양육태도나 행동과 같은 표면적 특징을 살펴보기 이전에 부모의 신념과 같은 사고 수준을 먼저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갖게 되는 다양한 신념 중 유아의 놀이에 대한 신념은 유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Fogle & Mendez, 2006). 부모가 유아의 놀이에 대해 놀이지지신념을 가지느냐, 학습중심신념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영향은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놀이지지신념이란 부모가 유아에게 있어 놀이는 발달적으로 중요함을 인지하고, 유아의 자발적인 놀이를 지지하는 신념을 의미한다(이한별, 2008). 이와는 반대로 학습중심신념이란 글자나 숫자와 같은 학습적인 기술을 중시하며, 놀이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의미한다(양휘성, 2019). 부모의 놀이신념에 관한 연구들은 놀이신념이 유아의 다양한 사회적 능력 및 정서적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이진화, 임원신, 조성연, 2009; 이효임, 신나리, 2020), 부모가 놀이지지신념을 보일수록 유아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박어진, 2012), 타인과의 관계나 일상적인 생활경험 속에서 자신이 하는 행동에 만족과 뿌듯함을 느껴 더 큰 행복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고정리, 2020; 이현지, 정혜욱, 2016).

부모의 놀이신념에 관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정민과 김소향(2016)의 연구는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이 유아가 자신의 인지 및 의식을 통해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동들을 억제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여겨지는 행동으로 실행하는 능력

을 높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현정(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이 유아의 주도성, 협동성, 사교성을 높인다고 하였으며, 김명혜와 김광웅(2006)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놀이를 지지하는 신념보다 학습을 중요시하는 신념을 보일수록 유아의 자발적인 놀이와 유아가 가진 잠재력 발현을 방해하며, 나아가 부적응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이 유아의 주도성, 자기통제,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LeBuffe와 Naglieri (1999)가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진 유아들의 특징을 안정적인 애착, 높은 주도성, 적절한 자기통제 능력, 낮은 문제행동이라고 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게 한다.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유아의 내적변인으로 유아의 놀이행동을 일으키는 놀이성이다. 놀이성은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즐거움을 더하려는 놀이적 태도와 내적인 성향으로 놀이의 질적 특성이자, 개인적 특성이다(김명순, 김길숙, 박찬화, 2012). 놀이성은 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써 유아는 놀이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와 접촉하고, 사회·정서, 인지, 언어, 신체 발달을 고르게 이루어 나간다(Sheridan, Howard, & Alderson, 2011). 2019개정 누리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9)에서는 놀이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유아가 주도적으로 즐겁게 그리고 충분히 놀이에 참여하기를 장려하고 있다. 놀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사회분위기를 고려할 때,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

유아의 놀이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놀이성이 높은 유아가 스트레스 대처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고 하였다(오주현, 2013; 한주희, 2017). Magnuson과 Barnett(2013)은 유아 때 형성된 놀이성이 성인기에도 영향을 주며, 높은 놀이성을 가졌을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적응력이 높으며, 효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의 놀이성, 자기조절력, 자아탄력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강수경, 김민정 그리고 정미라(2015)는 유아의 놀이성이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하였으며, 유아의 놀이성과 성격강점의 관계를 살펴본 탁정화(2020)는 높은 놀이성을 가진 유아일수록 탄력성, 자기조절력, 자아존중감의 성격강점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유아의 내적요인인 놀이성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외적요인인 부모의 놀이신념과 내적요인인 유아의 놀이성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자아탄력성을 폭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부모의 놀이신념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대상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확대하여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부부가 함께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현대사회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양육이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자녀양육과 교육에서 아버지의 참여도가 늘어났으며, 자녀에 대한 아버지들의 관심과 역할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놀이신념에 대한 기존 연구 대부분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강인숙, 문혁준, 2012; 남윤희, 김금주, 2013; 이진화, 2009; 채민경, 장경은, 2019), 아버지의 놀이신념에 대한 연구

는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아버지의 놀이신념에 대한 연구들은 아버지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놀이성(양희성, 2019; 최태선, 2020)과 놀이몰입 및 또래놀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정주, 박형신, 2017). 또한, 아버지가 놀이지지신념을 가질 때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정선영, 2019; 최현정, 2014). 이와 같이 아버지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주목하고자 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는 놀이에서 유아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부모가 적극적으로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고, 부모가 유아의 놀이를 지지하는 신념을 갖을수록 유아의 놀이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강주연, 이진희, 2020; 고정리, 2020; 김영희, 2012; 김진영, 최미숙, 2012; 최태선, 2020)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유아의 놀이성이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놀이성과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의 상호작용 효과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두 변인의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놀이를 강조하는 현 유아교육과정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놀이를 지지하는 부모의 신념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부모와 교사들에게 놀이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놀이신념, 놀이성, 자아탄력성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다각적인 차원에서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해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놀이성을 강화하는 방안탐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모의 놀이지지신념,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은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22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 426명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2월 27일까지 약 10주간 실시하

였다. 연구자는 기관의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설문지 배부와 회수는 담임교사를 통해 실행하였다. 부모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 설문지는 부모가 평정하였고, 유아의 놀이성 설문지는 담임교사($n = 50$)가 평정하였다. 설문지는 19개 어린이집에서 334가정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78.4%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334가정의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98가정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9개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총 236가정의 유아와 그들의 부모 설문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은 만 3세가 54.7%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여아가 56.8%로 남아보다 약간 더 많았다. 출생순위는 외동아가 49.2%로 가장 많았으며, 재원 중인 기관의 형태는 직장 어린이집(89.0%)이 대부분이었다(표 1 참조).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 = 236)

| 특성 | 구분 | 인원(명) | 빈도(%) |
|------|----------|-------|-------|
| 연령 | 만 3세 | 129 | 54.7 |
| | 만 4세 | 71 | 30.1 |
| | 만 5세 | 36 | 15.3 |
| 성별 | 남 | 102 | 43.2 |
| | 여 | 134 | 56.8 |
| 출생순위 | 외동아 | 116 | 49.2 |
| | 첫째 | 67 | 28.4 |
| | 둘째 | 48 | 20.3 |
| | 셋째 | 5 | 2.1 |
| 기관형태 | 직장어린이집 | 210 | 89.0 |
| | 국공립 어린이집 | 26 | 11.0 |

연구대상 아버지의 연령은 35~39세가 47.9%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대학교(4년제) 졸업이 66.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아버지가 하루에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은 평일 1시간~2시간미만이 107명(4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말은 3시간~6시간미만이 95명(40.3%)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연령은 35~39세가 58.5%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대학교(4년제) 졸업이 64.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어머니가 하루에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은 평일 1시간~2시간미만이 107명(4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말은 3시간~6시간미만이 124명(52.5%)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형태는 맞벌이 가정(84.3%)이 대부분이었으며, 월 평균 소득은 800만원 이상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연구대상 부모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 = 236)

| 특성 | 구분 | 부 | | 모 | |
|----|--------|-------|-------|-------|-------|
| | | 인원(명) | 빈도(%) | 인원(명) | 빈도(%) |
| 연령 | 30~34세 | 18 | 7.6 | 46 | 19.5 |
| | 35~39세 | 113 | 47.9 | 138 | 58.5 |
| | 40~44세 | 90 | 38.1 | 46 | 19.5 |
| | 45세 이상 | 15 | 6.4 | 6 | 2.5 |

표 2. 계속

| 특성 | 구분 | 부 | | 모 | |
|--------------|-----------------|-------|-------|-------|-------|
| | | 인원(명) | 빈도(%) | 인원(명) | 빈도(%) |
| 교육수준 | 고등학교 졸업 | 11 | 4.7 | 3 | 1.3 |
| | 전문대학(2, 3년제) 졸업 | 18 | 7.6 | 29 | 12.3 |
| | 대학교(4년제) 졸업 | 158 | 66.9 | 153 | 64.8 |
| | 대학원 졸업 이상 | 49 | 20.8 | 51 | 21.6 |
| 평일 | 0시간~1시간미만 | 93 | 39.4 | 38 | 16.1 |
| | 1시간~2시간미만 | 107 | 45.3 | 107 | 45.3 |
| | 2시간 이상 | 36 | 15.3 | 91 | 38.6 |
| 자녀와의 놀이시간 | 0시간~1시간미만 | 11 | 4.7 | 6 | 2.5 |
| | 1시간~3시간미만 | 76 | 32.2 | 52 | 22.0 |
| 주말 | 3시간~6시간미만 | 95 | 40.3 | 124 | 52.5 |
| | 6시간~9시간미만 | 35 | 14.8 | 40 | 16.9 |
| | 9시간 이상 | 19 | 8.1 | 14 | 5.9 |
| 가정 형태 | 맞벌이 가정 | | | 199 | 84.3 |
| | 전업주부 가정 | | | 37 | 15.7 |
| 월 평균 가정 소득 | 200만원~300만원 미만 | | | 2 | 0.8 |
| | 300만원~400만원 미만 | | | 13 | 5.5 |
| | 400만원~500만원 미만 | | | 28 | 11.9 |
| | 500만원~600만원 미만 | | | 40 | 16.9 |
| | 600만원~700만원 미만 | | | 33 | 14.0 |
| | 700만원~800만원 미만 | | | 27 | 11.4 |
| | 800만원 이상 | | | 93 | 39.4 |

2. 연구도구

1) 부모의 놀이지지신념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은 이한별(2008)이 Fogle과 Mendez(2006)가 제작한 ‘부모의 놀이신념 척도(Parent’s Play Beliefs Scale: PPBS)’를 번안 및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PPBS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5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을 각각 알아보기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본래 2개의 하위범주로 놀이지지신념이 19문항, 학습중심신념이 11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학습중심신념 문항은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지지신념 점수의 평균값을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아버지 .90과 어머니 .87이었다.

2)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놀이성은 김명순, 김길숙 그리고 박찬화(2012)가 개발 및 타당화한 유아용 놀이성 평정척도(Children’s Playfulness Rating Scale: CPRS)’를 사용하였다. CPRS는 4개의 하위범주로 자발적 몰입(5문항), 즐거움의 표현(6문항), 인지적 융통성(9문항), 주도적 참여(15문항)로 구성되어 있음

며, 총 35문항이다.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놀이성 전체 점수의 평균값과 각 하위범주 점수의 평균값을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가 평정하도록 개발되었으나 예비조사 결과 교사가 평정하는데 무리가 없었으며, 교사가 부모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유아의 놀이를 평정할 것이라 여겨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한 유아의 담임교사가 이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유아의 놀이성 평정척도의 하위범주별 신뢰도 (Cronbach's α)는 자발적 몰입 .88, 즐거움의 표현 .86, 인지적 융통성 .92, 주도적 참여 .95였다.

3)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LeBuffe와 Naglieri(1999)가 개발한 ‘탄력성 검사(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sment: DECA)’를 전은희(2008)가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DECA는 자녀에 대한 이해가 높은 양육자가 자녀의 최근 행동에 기초하여 평정하였다. 본래 이 척도는 자기통제(7문항), 애착(8문항), 문제행동의 낮은 정도(10문항), 주도성(12문항)의 4개 하위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문제행동의 낮은 정도의 문항 중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문항을 제외하고 총 36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하지 않았다(1점)’에서 ‘매우 자주 하였다(5점)’까지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전체 점수의 평균값과 각 하위범주 점수의 평균값을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유아의 자아탄력성 평정척도의 하위범주별 신뢰도 (Cronbach's α)는 자기통제 .79, 애착 .76, 문제행동의 낮은 정도 .71, 주도성 .85였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넷째,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와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한 후, 유아의 성과 연령을 통제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구성하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 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부모의 놀이지지신념,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문항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을 살펴보면 가능한 점수범위(1~5점)를 고려하였을 때, 아버지의 놀이지지신념($M= 4.19, SD= .45$)과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M= 4.25, SD= .40$)은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은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유아의 놀이성을 살펴보면 하위범주별 평균 점수는 3.69~4.34에 걸쳐 분포되었고, 놀이성 전체의 평균 점수는 3.88($SD= .67$)이었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놀이성은 점수 범위(1~5점)를 고려해 볼 때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놀이성 하위범주 중 즐거움의 표현($M= 4.34, SD= .57$)이 가장 높았고, 인지적 융통성($M= 3.90, SD= .74$), 자발적 몰입($M= 3.86, SD= .77$), 주도적 참여($M= 3.69, SD=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살펴보면 하위범주별 평균 점수는 3.81~4.44에 걸쳐 분포되었고, 자아탄력성 전체의 평균 점수는 4.05($SD= .37$)였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가능한 점수 범위(1~5점)를 고려해 볼 때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아탄력성의 하위범주 중 애착($M= 4.44, SD= .40$)이 가장 높았고, 문제행동의 낮은 정도($M= 4.04, SD= .48$), 주도성($M= 3.96, SD= .47$), 자기통제($M= 3.81, SD=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변인들의 문항 평균, 표준편차 (N = 236)

| 구분 | | M | SD |
|---------------|-------------|------|-----|
| 부모의 놀이지지신념 | 아버지 놀이지지신념 | 4.19 | .45 |
| | 어머니 놀이지지신념 | 4.25 | .40 |
| 유아의 놀이성 | 주도적 참여 | 3.69 | .78 |
| | 인지적 융통성 | 3.90 | .74 |
| | 즐거움의 표현 | 4.34 | .57 |
| | 자발적 몰입 | 3.86 | .77 |
| | 놀이성 전체 | 3.88 | .67 |
| 유아의 자아탄력성 | 애착 | 4.44 | .40 |
| | 주도성 | 3.96 | .47 |
| | 자기통제 | 3.81 | .49 |
| | 문제행동의 낮은 정도 | 4.04 | .48 |
| | 자아탄력성 전체 | 4.05 | .37 |

2.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1)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및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관계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기초 분석으로써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놀이지지신념은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r = .20, p < .01$),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하위범주 중에서는 애착($r = .26, p < .01$)과 주도성($r = .22, p < .01$)에만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도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r = .46, p < .01$),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하위범주인 애착($r = .47, p < .01$), 주도성($r = .45, p < .01$), 자기통제($r = .37, p < .01$), 문제행동의 낮은 정도($r = .19, p < .01$)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유아의 놀이성 전체 점수는 유아의 자아탄력성 전체 점수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 = .22, p < .01$). 유아의 놀이성의 하위범주와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하위범주와의 상관을 살펴보면, 놀이성의 하위범주인 주도적 참여는 자아탄력성의 하위범주 중 주도성($r = .21, p < .01$), 자기통제($r = .15, p < .05$), 문제행동의 낮은 정도($r = .30, p < .01$)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인지적 융통성도 주도성($r = .21, p < .01$), 자기통제($r = .15, p < .05$) 문제행동의 낮은 정도($r = .22, p < .01$)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자발적 몰입도 주도성($r = .22, p < .01$), 자기통제($r = .13, p < .05$) 문제행동의 낮은 정도($r = .22, p < .01$)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한편, 유아의 놀이성의 하위범주 중 즐거움의 표현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하위범주 모두와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4. 부모의 놀이지지신념,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계수 (N = 236)

| 구분 ^a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부모의 놀이 지 지 신 념 | (1) | | | | | | | | | | | |
| | (2) | .32* | | | | | | | | | | |
| | (3) | -.15** | -.08 | | | | | | | | | |
| 유아의 놀이 성 | (4) | -.15** | -.08 | .96** | | | | | | | | |
| | (5) | -.15* | -.04 | .92** | .81** | | | | | | | |
| | (6) | -.12 | -.12 | .76 | .64** | .65** | | | | | | |
| | (7) | -.12 | -.07 | .92** | .83** | .87** | .66** | | | | | |
| 유아의 자아 탄 력 성 | (8) | .20** | .46** | .22** | .23** | .21** | .08 | .21** | | | | |
| | (9) | .26** | .47** | .06 | .05 | .07 | .03 | .05 | .77** | | | |
| | (10) | .22** | .45** | .21** | .21** | .21** | .11 | .22** | .90** | .65** | | |
| | (11) | .13 | .37** | .14** | .15* | .15* | .06 | .13* | .88** | .63** | .78** | |
| | (12) | .04 | .19** | .26** | .30** | .22** | .06 | .22** | .68** | .31** | .39** | .46** |

^a구분: (1)아버지 놀이지지신념 (2)어머니 놀이지지신념 (3)놀이성 전체 (4)주도적 참여 (5)인지적 융통성 (6)즐거움의 표현 (7)자발적 몰입 (8)자아탄력성 전체 (9)애착 (10)주도성 (11)자기통제 (12)문제행동의 낮은 정도 * $p < .05$, ** $p < .01$.

2)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효과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놀이성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유아의 성과 연령이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표 5. 사회 인구학적 배경과 유아의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계수

(N = 236)

| 구분 | 유아의 자아탄력성 | | | |
|-------------|-----------|------|------|-------------|
| | 애착 | 주도성 | 자기통제 | 문제행동의 낮은 정도 |
| 유아 성별 | .04 | .06 | .08 | .16** |
| 유아 연령 | .00 | .13* | .14* | .06 |
| 아버지 연령 | .00 | -.06 | -.06 | -.05 |
| 아버지 학력 | -.04 | .00 | .01 | .09 |
| 어머니 연령 | -.02 | .01 | .06 | .12 |
| 어머니 학력 | .10 | .07 | .02 | -.07 |
| 아버지 평일 놀이시간 | .07 | .04 | .01 | .08 |
| 아버지 주말 놀이시간 | .04 | .02 | .01 | .05 |
| 어머니 평일 놀이시간 | .01 | .02 | .10 | .05 |
| 어머니 주말 놀이시간 | .03 | .07 | .04 | -.03 |
| 가정 소득 | .08 | .05 | .00 | -.11 |

* $p < .05$, ** $p < .01$.

이에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1단계에서는 유아의 성과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2단계에서는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놀이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놀이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유아의 놀이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중심화 절차를 수행하였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및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Durbin-Watson 지수와 Variance Inflation Factor(VIF)를 먼저 확인하였다. Durbin-Watson 지수는 2.15로 2에 근접하고, VIF는 10미만인 1.00~1.19의 범위로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제변수인 유아의 성과 유아의 연령을 투입한 1단계 모델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약 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유아의 성과 유아의 연령을 통제하고, 독립변수인 유아의 놀이성과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이 추가된 2단계 모델에서는 설명력이 약 27%($p < .001$)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약 29%($F = 18.68, p < .00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놀이성($\beta = .26, p < .001$)과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beta = .45, p < .001$)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독립변인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3단계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F = 13.70, p < .001$), 유아의 놀이성과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6 참조).

표 6.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놀이성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N = 236)

| 변인 | 유아의 자아탄력성 | | |
|-----------------------|-----------|----------|----------|
| | 1단계 β | 2단계 β | 3단계 β |
| 유아의 성 | .11 | .08 | .08 |
| 유아의 연령 | .08 | .03 | .03 |
| 유아의 놀이성 | | .26*** | .25*** |
| 부모의 놀이지지신념 | | | |
| 아버지 놀이지지신념 | | .10 | .10 |
| 어머니 놀이지지신념 | | .45*** | .46*** |
| 유아의 놀이성 × 아버지의 놀이지지신념 | | | -.02 |
| 유아의 놀이성 ×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 | | | -.08 |
| R ² | .02 | .29*** | .30 |
| ΔR ² | | .27*** | .01 |
| F | 2.01 | 18.68*** | 13.70*** |

***p < .001.

아울러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유아의 놀이성을 하위범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Durbin-Watson 지수는 2.13으로 2에 근접하고, VIF는 10미만인 1.00~9.78의 범위로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제변수인 유아의 성과 유아의 연령을 투입한 1단계 모델은 유의하지 않았다. 독립변수인 유아의 놀이성의 하위범주와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이 추가된 2단계 모델에서는 설명력이 약 27%(p < .001)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투입된 독립변수들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약 28%(F = 11.93, p < .001)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아 놀이성의 하위범주 중 주도적 참여(β = .24, p < .05)와 부모 놀이지지신념 중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β = .44, p < .001)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자아탄력성에는 어머니의 놀이를 지지하는 신념과 주도적인 유아의 놀이성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독립변인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3단계 모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F = 6.42, p < .001), 유아의 놀이성 하위범주와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7 참조).

표 7.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하위범주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N = 236)

| 변인 | 유아의 자아탄력성 | | |
|---------|-----------|----------|----------|
| | 1단계 β | 2단계 β | 3단계 β |
| 유아의 성 | .11 | .07 | .08 |
| 유아의 연령 | .08 | .03 | .03 |
| 유아의 놀이성 | | | |
| 주도적 참여 | | .24* | .21* |
| 인지적 융통성 | | .03 | .04 |
| 즐거움의 표현 | | -.06 | -.05 |
| 자발적 몰입 | | .05 | .05 |

표 7. 계속

| 변인 | 유아의 자아탄력성 | | |
|-----------------------|----------------|----------------|----------------|
| | 1단계 β | 2단계 β | 3단계 β |
| 부모의 놀이지지신념 | | | |
| 아버지 놀이지지신념 | | .10 | .12 |
| 어머니 놀이지지신념 | | .44*** | .45*** |
| 주도적 참여 × 아버지의 놀이지지신념 | | | .07 |
| 인지적 융통성 × 아버지의 놀이지지신념 | | | -.16 |
| 즐거움의 표현 × 아버지의 놀이지지신념 | | | -.18 |
| 자발적 몰입 × 아버지의 놀이지지신념 | | | .20 |
| 주도적 참여 ×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 | | | -.03 |
| 인지적 융통성 ×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 | | | .14 |
| 즐거움의 표현 ×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 | | | .02 |
| 자발적 몰입 ×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 | | | -.19 |
| R^2 | .02 | .30*** | .32 |
| ΔR^2 | | .28*** | .02 |
| F | 2.01 | 11.93*** | 6.42*** |

* $p < .05$,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5세 유아와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일반적 경향과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이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자아탄력성 관계에서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첫째,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부모들은 놀이 활동 참여와 효과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자녀의 사회-정서적 경험을 포함하는 놀이를 높게 평가하고, 지지하는 신념을 가졌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명순, 조항린, 박영림, 신혜영, 2013; 김진영, 최미숙, 2012; 이현지, 정혜옥, 2016)와 일치한다.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는 부모의 높은 교육열에서 비롯된 조기 교육이 다수의 유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최민혜, 2018), 최근 들어 개정된 누리과정에서 유아의 놀이를 강조하고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9), 부모들도 놀이의 교육적·발달적 가치 및 정서적 가치를 높게 인지하게 되면서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강승지, 손유진, 2018; 고진영, 2020; 홍수경, 2010).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이 부모의 놀이신념에도 영향을 주어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이 높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둘째, 유아의 놀이성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놀이성 하위범주 중 즐거움의 표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인지적 융통성, 자발적 몰입, 주도적 참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놀이성 중 즐거움의 표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주도적 참여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문미지, 2016; 양지선, 2020; 양희성, 2019)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유아가 놀이 시 즐거움, 기쁨, 성취에 대한 만족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활발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아탄력성의 하위범주 중 애착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문제행동의 낮은 정도, 주도성, 자기통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자아탄력성 중 애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자기통제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민경, 오선진, 2016; 이남윤, 김혜순, 2017; 조아영, 김혜순, 2016)와 일치하며, 유아의 성장 과정에서 안정적 애착은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구희정, 강정원, 2009; 이완정, 2002)와 맥을 같이 한다. 이를 통해 부모, 가족 구성원, 교사와 같이 유아에게 의미 있고, 친밀한 성인과 지속적이고 강력한 상호적 관계를 나타내는 애착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성과 연령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한 후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및 하위범주를 예측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놀이지지신념 중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놀이성과 놀이성의 하위범주 중 주도적 참여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 중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보인 결과는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최은정과 김금주(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이 유아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적절하게 감정을 통제하며,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나타내고,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변인임을 나타낸다. 한편 아버지의 놀이지지신념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아버지의 놀이참여도에 비해 유아의 탄력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문성영과 심성경(2020)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Grusec(1993)은 부모의 신념이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관심과 역할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도 높아졌으며, 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도 증가하였다(하상목, 이순복, 2017).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건상 아버지가 유아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며,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은 어머니보다 적게 나타났다. 김정수와 황혜신(2020)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유아의 자아탄력성 발달을 위해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필요함을 시

사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의 아버지들이 높은 놀이지지신념을 가졌음에도 자녀와의 부족한 놀이 시간으로 인해 아버지의 놀이를 지지하는 신념은 자녀에게 전달되기 어려웠을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보인 결과는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구현주와 이진희(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Magnuson과 Barnett(2013)은 놀이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높은 놀이성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유연하게 상황을 대처하며,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시사한다.

유아의 놀이성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놀이성의 하위범주 중 주도적 참여만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적 참여란 유아가 또래와 협력하고, 놀잇감을 나누며, 또래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주도적 참여와 유사한 개념인 주도성, 협조성, 사교성을 포함한 사회적 능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박진희(2016)의 연구결과와 또래상호작용과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이광자(2014)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을 보인다. 이는 또래와 놀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발달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유아의 놀이성이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미연(2012)과 박상미(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놀이성에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놀이지지신념 중 아버지의 놀이지지신념은 유아의 놀이성에 부적상관을 보였고,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은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와 연령은 다르나 맞벌이 부모의 놀이신념과 놀이참여도, 만 2세의 놀이성의 관계를 살펴본 윤상인(2011)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을 보인다. 윤상인(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이 높아도 맞벌이 부모의 특성 상 자녀와 생활하는 시간이 적고, 아버지의 경우 놀이지지신념이 높아도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 놀이하는 방식을 잘 알지 못해 유아의 놀이성에 관련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맞벌이였으므로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은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연구에서는(강주연, 이진희, 2020; 고정리, 2020; 김영희, 2012; 김진영, 최미숙, 2012; 최태선, 2020)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이 유아의 놀이성에 긍정적 영향을 줌을 밝혔다. 따라서 가정의 형태, 부모의 놀이시간, 놀이유형 등을 고려하고, 비교하여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놀이지지신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추후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놀이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유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놀이는 유익하다고 믿을수록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 상황을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다. 이에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놀이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기관과 가정이 연계하여 가정에서도 유아들이 충분히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유아가 놀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수록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증진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유아가 또래와 협력하고, 나누며, 주도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등의 놀이 경험 속에서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발달하게 되는데, 이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또래와 함께하는 협동놀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소라(2007)는 유아의 협동놀이가 상황과 타인의 감정 등을 이해하고, 문제 상황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으며, 이정은(2020)은 협동의 경험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일상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나아가 교육기관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협동에 대한 올바른 개념인식을 갖고, 유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해 또래와 협동하여 놀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들의 협동놀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유도해 주는 다양한 교수 능력 함양이 필요하므로 유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동놀이 방법 및 형태를 고안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기초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직장어린이집 18곳과 국공립어린이집 1곳의 만 3~5세 유아와 그들의 부모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대부분은 직장어린이집 재원 유아로 편포되어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도 높은 수준으로 편포 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들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고, 여러 유형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표집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유아의 놀이성은 교사가 평정하였고,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놀이신념은 부모가 평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교사가 유아를 평정 시 유아에 대한 편견이나 주관적 사고가 반영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평정 시 자녀의 실제와는 달리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정하는 등의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놀이신념을 평정함에 있어서 부모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근거해 실제와 다르게 긍정적으로 평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부모와의 면접을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놀이신념을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요인으로 살펴보았다. 많은 유아들이 기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과 비슷하거나 더 길어진 만큼 교사의 놀이신념도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녀양육에 대한 현대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구대상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확대하였고,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외적변인인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내적변인인 유아의 놀이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놀이에서의 유아 주도적 참여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힘으로써 유아의 자아탄력성 발달을 위해서는 자녀의 놀이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며 유아가 또래와 협력하고, 나누며, 상호작용하는 놀이 참여 경험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참고문헌

- 강수경, 김민정, 정미라 (2015). 유아의 놀이성, 자기조절능력, 자아탄력성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회지**, 36(3), 155-174. doi:10.5723/KJCS.2015.36.3.155
- 강승지, 손유진 (2018). 유아 '놀이' 및 '학습'의 관계에 대한 부모 인식 연구: 메타포 분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8(5), 211-231. doi:10.18023/kjece.2018.38.5.009
- 강인숙, 문혁준 (2012).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 및 놀이신념과 유아 리더십이 유아 또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6(5), 233-252.
- 강주연, 이진희 (2020).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7), 453-461. doi:10.5762/KAIS.2020.21.7.453
- 고영희 (2010).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정리 (2020). 유아의 놀이성과 행복감 관계에서 부모의 놀이지지 신념 및 놀이 참여도의 매개효과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6), 483-503. doi:10.22251/jlcci.2020.20.16.483
- 고진영 (2020). 메타포(metaphor)를 활용한 부모의 놀이신념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6), 193-211. doi:10.22251/jlcci.2020.20.6.193
- 교육과학기술부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구현주, 이진희 (2019). 교사의 놀이 교수효능감 및 유아의 놀이성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교육혁신연구**, 29(4), 221-241. doi:10.21024/pnuedi.29.4.201912.221
- 구희정 (2010).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4(3), 271-291.
- 구희정, 강정원 (2009). 유아교사의 교수 스트레스와 유아와의 관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3(1), 279-297.
- 김명순, 김길숙, 박찬화 (2012).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33(2), 69-89. doi:10.5723/KJCS.2012.33.2.69
- 김명순, 조향린, 박영림, 신혜영 (2013). 부모와 유아 자녀의 놀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5(1), 37-53.
- 김명혜, 김광웅 (2006). 한국과 캐나다 거주 어머니들의 부모신념, 양육태도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아동복지연구**, 4(3), 1-23.
- 김민경, 오선진 (2016. 9).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행복감이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교육기관 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 2016년 추계정기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 서울.
- 김미연 (2012). 아버지의 유아놀이신념,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05). 유아의 탄력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영향. **유아교육연구**, 25(4), 191-209.

- 김영희 (201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7(2), 27-46. doi:10.16978/ecec.2012.7.2.002
- 김정수, 황혜신 (2020. 11).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0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 서울.
- 김정주, 박형신 (2017). 아버지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놀이몰입, 또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놀이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7(3), 29-48. doi:10.21213/kjcec.2017.17.3.29
- 김진영, 최미숙 (2012). 부모 놀이신념 수준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 및 리더십의 차이. **아동교육**, 21(4), 189-206.
- 남윤희, 김금주 (2013).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창의적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3(1), 61-80.
- 문미지 (2016). 유아의 놀이성 및 또래유능성과 어린이집에서의 생활만족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성영, 심성경 (2020). 부모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놀이성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2(1), 163-189. doi:10.36431/JPE.12.1.9
- 박상미 (2013). 어머니 양육행동 및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혜, 김광웅 (2003).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4(4), 1-14.
- 박어진 (2012).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기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희 (2016).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행복감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8(4), 89-106.
- 배정민, 김소향 (2016). 아버지의 놀이신념 및 훈육방식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5(3), 23-49. doi:10.21183/kjcm.2016.09.15.3.23
- 양지선 (2020). 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휘성 (2019).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놀이신념과 유아 놀이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주현 (2013). 만 5세 유아의 놀이성과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수경, 정영숙 (2003).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생활과학연구논총**, 7(1), 99-119.
- 윤상인 (2011). 맞벌이 부모가 지각한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도와 만 2 세 영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자 (2014). 유아의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또래상호작용과 유아리더십의 관계. 한국방송통

- 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남윤, 김혜순 (2017).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2(2), 19-40.
- 이완정 (2002). 발달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노출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보호요인 분석. **아동학회지**, 23(1), 1-16.
- 최은정, 김금주 (2015).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5(4), 135-154.
- 이정은 (2020). 협동활동 중심 유아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화 (2009). 어머니의 놀이신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의 관계.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3(2), 325-344.
- 이진화, 임원신, 조성연 (2009). 어머니의 놀이신념, 유아의 정서능력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0(3), 149-170.
- 이하정, 탁정화 (2015).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4), 39-61. doi:10.14698/jkce.2015.11.4.039
- 이한별 (2008). 부모의 유아 놀이신념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과 의사소통능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문혁준 (2011).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가족건강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4), 183-203.
- 이현지, 정혜옥 (2016). 부모의 놀이신념, 놀이참여, 유아의 행복감 간의 관계: 부모의 놀이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육아지원연구**, 11(4), 77-95. doi:10.16978/ecec.2016.11.4.004
- 이효임, 신나리 (2020).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 놀이시간의 매개 역할.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3), 59-77. doi:10.14698/jkce.2020.16.03.059
- 전은희 (2008). 어머니-자녀 상호작용과 유아의 탄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선영 (2019). 부모의 놀이신념,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상담심리교육복지**, 6(4), 149-159. doi:10.20496/cpew.2019.6.4.149
- 조아영, 김혜순 (2016). 어머니의 자녀성숙행동기대와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1), 117-137.
- 채민경, 장경은 (2019).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성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놀이중심 지지신념의 조절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9(1), 59-73. doi:10.21213/kjcec.2019.19.1.59
- 최민혜 (2018). 조기교육 경험의 효과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소라 (2007). 협동놀이가 만 3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태선 (2020). 아버지의 놀이신념과 유아 놀이성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 참여도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7), 333-342. doi:10.21184/jkeia.2020.10.14.7.333
- 최현정 (2014). 아버지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탁정화 (2020). 유아 놀이성에 대한 성격강점의 예측요인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4), 31-49. doi:10.14698/jkce.2020.16.04.031
- 하상목, 이순복 (2017). 아버지의 놀이신념과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6(1), 1-23. doi:10.21183/kjcm.2017.03.16.1.1
- 한주희 (2017). 아동의 놀이성, 스트레스 대처능력, 성취동기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수경 (2010). 유아의 놀이에 관한 부모의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lock, J., & Block, J. H. (2006). Venturing a 30-year longitudinal study. *American Psychologist*, 61(4), 315-327. doi:10.1037/0003-066X.61.4.315
- Brooks, R. B. (2005).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In S. Goldstein & R. B. Brooks (Eds.), *The power of parenting*(pp. 297-314). Boston, MA: Springer.
- Condly, S. J. (2006). Resilience in children: A review of literature with implications for education. *Urban Education*, 41(3), 211-236. doi:10.1177/0042085906287902
- Fogle, L. M., & Mendez, J. L. (2006). Assessing the play beliefs of African American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4), 507-518. doi:10.1016/j.ecresq.2006.08.002
- Grusec, J. E. (1993, Mar). *Mental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Parent Belief Systems, and Parenting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LA, USA.
- LeBuffe, P. A., & Naglieri, J. A. (1999). *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sment*. Lewisville, NC: Kaplan Press.
- Magnuson, C. D., & Barnett, L. A. (2013). The playful advantage: How playfulness enhances coping with stress. *Leisure Sciences*, 35(2), 129-144. doi:10.1080/01490400.2013.761905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doi:10.1037/0003-066X.56.3.227
- Sheridan, M. D., Howard, J., & Alderson, D. (2011). *Play in early childhood: From birth to six years(3rd Eds.)*. Abingdon, Oxon: Routledge.
- Tugade, M. M., & Fredrickson, B. L. (2004).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2), 320-333. doi:10.1037/0022-3514.86.2.320
- Werner, E. E., & Smith, R. S. (2001). *Journeys from childhood to midlife: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논문투고: 21.02.08

수정원고접수: 21.05.24

최종게재결정: 21.06.07